

# 白居易 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애도의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

- 哀悼詩와 哀祭文을 중심으로 -

이 수 정\*

<目次>

- |                            |                           |
|----------------------------|---------------------------|
| I. 서론                      | 2. 비탄의 고조: 유대 강조          |
| II. 백거이의 애도 문학 현황          | 3. 수동적 허무주의 발현:<br>죽음의 수용 |
| III. 죽음과 애도의 표현 방식         | IV. 타인의 죽음에 투영된 주체성       |
| 1. 삶의 의미 탐색: 사회적<br>불후성 추구 | V. 결론                     |

## I.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과 애도에 대한 인간의 지적인 관심과 그 역사는 상당히 길다<sup>1)</sup>.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대변해주듯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언제 죽음에 직면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공간에 머물지만, 그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탐색하려는 실존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따라서 죽음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행위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어왔다. 죽음은 한 개체의 소멸로서 엄밀히 개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수료.

1) 본 논문은 “이수정, 〈白居易 哀悼詩 小考-‘隨感遇’와 ‘直’에 따른 직설적인 말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76집, 2021”의 후속 연구이다. 내용과 작품의 번역이 중복되는 경우는 각주에 표기하였다.

인적 차원의 문제로 한정할 수 있지만, 인간은 줄곧 타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즉 죽음은 고독한 경험이며, 죽음에 공감하고 슬픔을 공유함으로써 실존적 문제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고 스스로의 삶을 위로하는 과정으로 상정한 것이다.

고대 중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이는 《詩經·邶風》의 〈二子乘舟〉에서 宣公의 두 아들인 伋과 壽를 애도한 사례 또는 《詩經·秦風》의 〈黃鳥〉에서 子車氏의 세 아들인 奄息·仲行·鍼虎가 순장된 사건을 애도한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죽음과 애도는 점차 종교의 영역과 합치되기 시작했고, 각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실존적 가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슬픔의 감정이 공유되었다.

일례로 유교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조상 숭배를 위시한 의례적인 장례와 제사를 발전시키는 한편, 죽음과 애도에 대한 인간 본연의 감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례없는 기준과 규범에 대한 관심 및 논의의 장을 형성했지만, 賈誼가 〈鵩鳥賦〉에서 “삶은 떠 있는 것과 같고, 죽음은 쉬는 것과 같네.(其生兮若浮, 其死兮若休)”<sup>2)</sup>라 한 언급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모호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거나, 陸機가 〈文賦〉에서 “碑文은 문장을 서술함에 있어 내용과 맞아 떨어져야 하고, 誄文은 잘 엮어서 슬픔을 표현해내야 하네.(碑披文以相質, 誄纏綿以淒愴)”<sup>3)</sup>라 하며 슬픔과 애도의 형식적 체계를 강구하는 등 죽음 앞에서 유발된 진심의 표출을 내면화하는데 치중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형식적인 가공을 거친 작품들은 표면적으로는 슬픔을 위시한 죽음과 애도의 주제를 정교하게 다루고 있었으나, 문학적 개성과 자율성의 추구를 지양하면서 솔직한 감정의 발현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하였다.<sup>4)</sup>

2) 蕭統, 《六臣注文選》, 中華書局, 2012, 258頁.

3) 같은 책, 312頁.

4) 위진남북조시대에 작가의 솔직한 감정 발현이 전무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대표적으로 西晉의 潘岳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悼亡詩〉 3수를 창작하였고,

그러나 中唐의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죽음’과 ‘애도’의 주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국난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죽음의 자각을 촉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따라 죽음은 일상적인 논의의 주제로 부상했으며, 작품에서의 사적인 감정 표출의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적 행위는 죽음과 애도에 대한 당인들의 변화된 세계관을 반영해주는 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백거이는 그에 일조한 일인으로, ‘隨感遇’와 ‘直’<sup>5)</sup>에 기초한 직설적인 말하기 방식의 명목 아래 그 누구보다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죽음과 애도에 접근했으며, 더욱이 애도의 문학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애도시 뿐만 아니라 애도 문학의 한 갈래인 哀祭文, 墓碑銘 등 哀祭類 산문의 창작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策林》의 〈議祭祀〉, 〈禁厚葬〉 등과 같은 哀悼文 양식 및 제례 의식과 관련한 글을 여러 차례 수록하기도 하였다.<sup>6)</sup> 이러한 백거이의 애도 문학 작품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양적인 다양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기존의 이념적 요소와 상반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뚜렷이 반영된 산물이라는

南朝의 謝靈運은 〈廬陵王墓下作〉을 통해 평소 가깝게 지냈던 廬陵王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하였다. 任昉도 〈出郡傳舍哭范僕射〉에서 절친한 벗이었던 范雲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江淹은 〈悼室人〉 10수를 지어 계절별로 느낀 슬픔을 토로하였다. 그밖에도 沈約의 〈悼亡詩〉, 〈傷王融〉, 〈傷謝朓〉, 〈傷庾杲之〉, 〈傷王暕〉, 〈傷虞炎〉, 〈傷李珪之〉, 〈傷韋景猷〉, 〈傷劉渢〉, 〈傷胡諧之〉, 庾信的 〈和王少保遙傷周處士〉, 〈傷王司徒喪〉 등이 전해진다. 현전하는 唐代 이전의 애도시는 약 100여 수이다. 작품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문단에서 주요한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唐代 이전 작품 수와 관련해서는 逯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 中華書局, 1983 참조.

- 5) “隨感遇”는 白居易가 〈與元九書〉에서 感傷詩의 핵심 용어로 제시한 文語로서,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개아가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함을 의미하며, “直”은 元稹이 《白氏長庚集》에서 “表狀과 奏狀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설하는데 있다.(啓表奏狀長于直)”라며 白居易 奏狀의 직설화법에 대해 평한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수정, 〈白居易 哀悼詩 小考-“隨感遇”와 “直”에 따른 직설적인 말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76집, 2021, 10쪽.
- 6) 같은 논문, 9쪽.

점에 있다. 이는 타인의 죽음에 주체적으로 개입하려는 개인 주체성 담론의 여지를 확보하는 한편, 백거이 애도 문학 전반을 이해하는 구심점이 된다.

그럼에도 백거이의 애도 문학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소략하다. 여기에는 특정 분야나 대상에 편중된 연구의 경향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겠으나<sup>7)</sup>, 보다 본질적으로는 고대 중국의 죽음 내지는 애도 문학에 대한 논의 자체가 외면되었던 사실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sup>8)</sup> 본고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사실적인 감정의 형상화에 주력한 백거이의 애도 문학 작품이 고대인들의 죽음 문제에 대한 일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준다고 보고, 그가 작품 속에 담아낸 죽음과 애도의 표현 방식에 천착해보려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백거이 애도 문학의 한 단면을 재조명하는 작업이겠지만, 거시적으로는 대상 텍스트의 본질에 접근하여 고대인들의 죽음과 애도에 대한 근원에 다가서려는 문화사적 의미 탐색의 일환이기도 하다.

논의의 대상은 백거이의 애도시와 애제문으로 설정하려 한다. 시와 제문은 엄밀히 상이한 문학 양식으로 각 체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서는 문학적 요소에 따른 개별적인 분석보다는 작품에 투영

7) 그에 대한 근거는 학위 논문 작성 현황을 통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신영애, 《白居易新樂府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0; 나영선, 《白居易 諷諭詩의 題材 및 文學史的 意義에 대한 考察》, 목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0; 정진걸, 《白居易 詩風의 變化 研究: 諷諭詩 消滅의 理由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0; 양성화, 《白居易諷諭詩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7; 이승희, 《백거이의 사회시 내용연구》, 울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7; 김혜미, 《白居易의 諷諭詩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8; 김현중, 《백거이 신악부시 내용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8; 임주, 《백거이 풍유시의 교화성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4 등이 있다.

8) 실제로 죽음과 애도에 대한 학술적 탐구가 본격화 된 것은 20세기 중반 무렵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 역사가 길지 않을뿐더러 그 역시 서양의 학술 경향에 근거한 것으로, 동양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출발단계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다. 죽음학(thanatology)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권석만(《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학지사, 2019) 35쪽 참조.

된 작가의 죽음과 애도의 표현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되도록 많은 자료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그동안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백거이의 죽음과 애도에 대한 인식을 해명하고, 그 의미와 본질에 다가서려는 목적에 기반한 것이다.

## II. 백거이의 애도 문학 현황

백거이가 애도와 죽음의 주제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진사에 급제하기 이전인 16세(787)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sup>9)</sup> 보다 본격적인 창작이 이루어진 시점은 元和 6년(811)에 모친인 陳氏가 사망한 이후로 볼 수 있다.<sup>10)</sup> 한림학사이자 좌승유로 승승장구해오던 정치 생애는 3년간의 복상기간을 거치면서 공백기를 갖게 된다. 가족의 불행은 모친의 사망에 그치지 않았다. 설상가상 같은 해 딸아이 金鑾子 또한 3세의 나이에 요절하게 되면서 백거이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애도 문학 창작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좌절감뿐만 아니라, 병약했던 신체 상황<sup>11)</sup>, 좌절된 앞날에 대한 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현존하는 백거이의 애도 문학 작품 중 모친의 죽음을 애도한 것은 전해지지 않는다. 모친의 죽음이 정적들에 의해 강주 좌천의 명분으로 제기되자<sup>12)</sup> 그에 대한 언급을 꺼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신 자녀의 죽음

9) 〈昭德皇后挽歌詞〉는 그가 16세의 나이 때 병사한 昭德皇后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현존하는 백거이의 애도 문학 작품 중 가장 초기에 창작된 것이다.

10) 백거이의 모친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치료하고자 백방으로 약을 써 보았으나 끝내 꽃구경 도중 우물에 투신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유병래, 《세속적 욕망과 그 달관의 노래》, 신서원, 2007, 21쪽 참조.

11) 〈病中哭金鑾子〉 중 “내가 막 병이 났는데, 도리어 네가 온전하지 못하게 될 줄 어찌 예상했으랴.(豈料吾方病, 翻悲汝不全)”의 구절에 제시되었듯이, 딸애이가 죽을 무렵 백거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을 애도한 작품은 몇 차례에 걸쳐 꾸준히 창작되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죽음과 애도의 문학화 또한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양적인 증가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질적인 발전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를테면 기존 작품이 현인의 공적을 칭양하고 기리려는 진혼의 형식적인 방편을 부각시켰다면, 모친 사망 이후부터는 애도 주체인 개아의 애상 심리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를 보자면, 그의 애도 문학 창작은 단순히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기원하려는 보편적인 심리적 동인에서 나왔다고보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강주 좌천이라는 연이은 정치적 실의가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파생된 고통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sup>13)</sup>

백거이는 다양한 문학 양식을 활용하여 애도 문학을 창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애도시, 애제문<sup>14)</sup>을 들 수 있으며, 墓誌銘 등을 통해서도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먼저 애도시를 살펴보자. 전해지는 애도시는 약 40수로, 그의 애도 문학 작품 중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애도 유형별로는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 22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작품 12수로 일상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백거이는 평소 알고지내며 시문을 주고받은 사람이 약 240여 명이나 되는 만큼<sup>15)</sup> 상당히 사교적인 인물이었으나, 애도 대상으로 제시된 인물은 절친한 몇몇 벗에 한정된다. 그 중 元稹과의 우애가 가장 깊었다. 그와 관련된 애도시만 약 8수가 전해진다. 절반은 그의 아내의 죽음을 대신 애도하고 있으

12) 백거이의 정적들은 그의 모친이 우물에 투신하여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물과 꽃을 제재로 한 작품을 창작한 것을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라 주장하며 이를 강주 좌천의 명분으로 제기하였다. 결국 백거이는 44세(815)에 강주로 좌천되게 된다.

13) 이수정, 앞의 논문, 16-17쪽.

14) 여기서 哀祭文은 《白居易集》에 실린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제문에 해당한다. 백거이는 자신의 시가 작품을 ‘諷諭詩’, ‘閑寂詩’, ‘感傷詩’, ‘雜律詩’의 네 부류로 분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朱金城, 앞의 책 참조.

15) 유병례, 앞의 책, 204쪽.

며,<sup>16)</sup> 절반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元稹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지은 것이다.<sup>17)</sup> 가족은 첫째 딸인 金縷子와 막내아들인 阿崔가 시적 대상으로 제시되며, 친척의 죽음을 애도한 시 1수가 전해진다.<sup>18)</sup> 그밖에도 백거이는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애도시 작품을 창작하는 등<sup>19)</sup> 죽음과 애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白居易集箋校》에는 애제문 14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신에 대한 제례용 제문을 제외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총 7편이다. 그밖에 애제문 부류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제문으로 볼 수 있는 작품 4수<sup>20)</sup>를 추가하면 총 11편이 전해진다. 그 중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6편으로, 평소 절친했던 벗인 元稹, 李建 등이 중심이 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5편으로, 그의 형제와 친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애도시와 달리 애제문에서 자녀의 죽음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대상의 신분에 따라 문학 체재의 활용에 차별을 두었던 당시의 창작 관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7편의 묘지명이 전해지고 있으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2편의 작품을 제외하면 대리 창작과 왕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논의의 참고 대상으로만 삼기로 한다.

백거이는 70세 무렵에 이르기까지 애도 문학 창작을 지속했을 만큼 애도와 죽음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었다.<sup>21)</sup> 더욱이 사실주의

16) 〈和元九悼亡-感舊蚊幃作〉, 〈見元九悼亡詩, 因以此寄〉, 〈答謝家最小偏憐女-感元九悼亡詩, 因爲代答三首〉, 〈答騎馬入空臺〉 등이 있다.

17) 〈哭微之二首〉, 〈哭微之第三首〉, 〈元相公挽歌詞三首〉, 〈微之敦詩晦叔相次長逝, 巋然自傷, 因成二絕〉 등이 있다. 그 중 〈微之敦詩晦叔相次長逝, 巋然自傷, 因成二絕〉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元稹, 崔羣, 崔玄亮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18) 그에 대한 예시로 〈哭從弟〉가 있다.

19) 〈感月悲逝者〉, 〈聞哭者〉, 〈輓歌詞〉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20) 朱金城의 《白居易集箋校》 卷69의 “碑序解祭文記(凡十二首)”에 수록된 〈祭弟文〉, 〈祭微之〉, 〈祭李司徒文〉, 〈祭中書韋相公文〉이 이에 해당한다.

21) 〈哭劉尚書夢得二首〉는 그의 나이 71세에 먼저 세상을 떠난 劉禹錫(772~842)

적 감정 서사에 기반한 창작을 추구하면서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기복과 솔직한 내면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백거이의 애도 문학 작품을 살피는 과정은 한 인물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을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당대 사람들의 죽음과 애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근거의 한 부분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Ⅲ. 죽음과 애도의 표현 방식

#### 1. 삶의 의미 탐색: 사회적 불후성 추구<sup>22)</sup>

죽음과 애도에 대처하는 태도는 개개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고대 중국에서는 망자를 애도하는데 있어 대상의 존재 가치를 후세에 널리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름과 덕망을 널리 전파하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망각되지 않는 불후의 삶을 최고의 경지로 여긴 것이다.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육체적 고통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타인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회적 소멸에서 기인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고대인들의 노력은 이르게는 묘비의 건립에

---

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작품이다. 전해지는 애도시 작품 중 가장 만년에 창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 22) 권석만은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려는 욕구를 지닌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죽음으로 인해 자기존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망각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라 하며 사회적인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 언급하였다. 권석만, 위의 책, 406쪽 참조. 본고는 백거이 작품에도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질이 반영되어있을 것이라고 보고, 본 장의 소제목을 ‘사회적 불후성 추구’로 설정하였다.

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문학 창작물을 통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불후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애도 문학 창작을 통해 망자의 덕망이나 이상적인 행적을 부각시켜 선양하는데 있었다. 때문에 애도 대상 역시 사회적으로 검증된 인물에 한정되었으며, 형식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칭양의 내용이 중심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는 중당의 백거이에 이르러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단순히 칭양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데서 나아가, 애도 주체인 화자가 직접 망자의 삶에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의미를 재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그 대상 역시 작가와 친분이 있는 주변 인물을 비롯하여 오랜 세월 창작의 대상으로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가족에 이르는 등 평범한 인물들이 보편적인 애도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타인의 삶에 개입하여 그 의미를 재탐색하는 과정은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징후로서, 백거이의 애도 문학 작품에 분명히 제시된다.

그에 대한 예시로 먼저 〈哭孔戡〉 전문을 살펴보자.

洛陽誰不死	낙양에서 누가 죽지 않겠는가.
戡死聞長安	그대 죽었다는 소식 장안에서 들었네.
我是知戡者	나는 공감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聞之涕泫然	듣고 나서 눈물을 줄줄 흘렸네.
戡佐山東軍	그대 노중사 도와 서기를 담당했는데
非義不可干	의로운 일 아니라 할 수 없었지.
拂衣向西來	이에 옷 떨치고 서쪽을 향해 왔는데
其道直如弦	그의 도리 곧음이 활시위 같았네.
從事得如此	섬기고 따름도 이와 같이 했나니
人人以爲難	사람들은 그것을 어렵다 여겼네.
人言明明代	사람들은 밝은 시대를 빛나게 하려면
合置在朝端	조정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네.

或望居諫司	혹자는 그가 간언하는 직위에 있어
有事戡必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말하길 바랐고
或望居憲府	혹자는 사헌부에 있어
有邪戡必彈	사악함이 있으면 반드시 탄핵하길 바랐네.
惜哉兩不諧	애석하구나. 두 가지가 모두 이루지 못하여
沒齒爲朋官	늙어 이가 빠질 때까지 한가한 벼슬살이 하였네.
竟不得一日	끝내 하루도 그 자리 얻지 못했으나
謗謗立君前	강직하게 임금님 앞에 서서 간언했었지.
形骸隨衆人	몸은 못 사람들 따라
斂葬北邙山	북망산에 묻혔네.
平生剛腸內	평생을 굳세고 굽히지 않는 마음속에 있어
直氣歸其間	강직한 기개 그 사이로 돌아갔네.
賢者爲生民	현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하고
生死懸在天	생사는 하늘에 달려있네.
謂天不愛人	하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胡爲生其賢	그렇다면 어찌 현자를 태어나게 했겠는가.
謂天果愛民	하늘이 끝내 백성을 사랑한다 이르지만
胡爲奪其年	그렇다면 어찌 그 생명을 탈취해갔는가.
茫茫元化中	아득하고 끝없는 속에서
誰執如此權	누가 이러한 저울질 잡을 수 있겠는가. <sup>23)</sup>

상기의 시는 孔戡의 부고 소식을 들은 심경에 대한 묘사를 시작으로 망자의 과거의 행적을 본론에 서술하였으며, 다시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한 애통함을 서술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애제류 산문이 보편적으로 추구했던 ‘榮始而哀終’<sup>24)</sup>의 서술 구조를 나타내지만, 작가는 행적의 밝은 면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23) 이수정, 앞의 논문, 21-22쪽.

24) 일례로 劉勰은 《文心雕龍·誄碑》에서 “문장 전반에 망자의 덕행을 서술하고 후반에 작자의 애상심리를 서술한다. (榮始而哀終)는 誄文의 창작규범을 명시한 바 있다.

의롭지 않은 일을 과감히 떨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못 선비들이 선망하는 현인의 형상이다. 이에 작가는 사사로운 일에 현혹되지 않는 생전 망자의 성품을 “활시위”에 빗대어 평가한다. 이는 망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후행되는 구절 역시 망자의 생전 행적에 대한 기술이 중심이 된다. 그런데 이 때 화자는 행적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애도 주체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로 확장시켜 제3의 집단의 개입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훌륭한 자질을 갖춘 망자가 응당 조정에 임하여 임금님께 간언하고 위법에 대해 탄핵을 행해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사실상 망자에 대한 작가 개인의 평가이지만, 다수에 의해 망자의 삶이 긍정되는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과거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을 상향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포부를 실현하지 못했으나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굳은 의지를 임금에게 보였던 절개를 재차 강조한다. 여기에는 “한가한 벼슬살이”로 삶을 마감한 망자에 대한 애석함 또한 분명히 내재되었지만, 강인한 신념과 의지로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망자의 성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음을 전달하는데 무게가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자면, 위 작품은 망자의 삶 전반과 그 행적에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의미를 재탐색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존재의 망각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예시라 하겠다.

망자의 삶과 행적이 현인의 형상에 빗대어 묘사되기도 한다. 아래에서 〈哭皇甫七郎中〉을 보자.

志業過玄晏	학업에 둔 뜻은 황보밀의 고아한 경지를 넘어섰고
詞華似禰衡	시문의 문채는 예형과 닮았네.
多才非福祿	재주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며
薄命是聰明	박명한 이들은 거의 총명하다네.
不得人間壽	이들은 비록 세상과 함께 장수를 얻지 못했으나
還留身後名	죽은 후 이름을 남겼다네.
涉江文一首	강 건너며 쓴 글 한 수

便可敵公卿    공경대부와 대적할만하네.

위 작품은 皇甫湜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것으로, 슬픔의 표출보다는 현인의 형상을 예시하여 망자의 삶과 과거의 행적을 재서술하는데 초점이 놓인다. 皇甫湜은 晉代의 학자로 평생을 저술에 힘쓰다 세상을 떠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禰衡은 동한 말 문사로 강오한 성품과 단숨에 글을 지어내는 문장가로 이름이 전해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망자의 행적을 일일이 서술하는 나열식 구조를 활용하는 대신, 잘 알려진 현인의 일면을 망자에게 빗대어 과거의 삶을 재탐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재다능했던 皇甫湜이 저술 활동에 몰입해 병으로 삶을 마감한 것이 결코 다복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과, 25세의 나이에 요절했음에도 이름을 널리 알렸던 禰衡의 사례는 그들의 삶과 행보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지만, 작가는 두 현인과 망자를 대등한 위치에 놓지 않고 도리어 선현을 뛰어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에 이른다. 이는 우열 관계를 논하려는 의도라기보다, 망자가 이루어온 과거의 삶과 행적이 현인의 자취에 필적할 만하다는 의도를 내비치려는데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슬픔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교훈적 인물의 형상에 망자를 빗대어 그 삶의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애도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의 이면에는 사회적 불후를 염원하여 오래도록 잊히지 않길 바라는 심리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망자의 생전 업적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직설적인 화법으로 제시하여 그에 대한 삶의 의미를 재탐색하기도 한다. 다시 〈哭微之二首〉 중 其二를 보자.

文章卓犖生無敵	문장이 뛰어나 살아서 대적할 이가 없었고
風骨英靈歿有神	강하고 곧은 기백은 영혼이 되어서도 신령함 있는 듯하네.
哭送咸陽北原上	울며 함양 북쪽 언덕에서 보내주는데

可能隨例作灰塵 법식에 따라 재와 먼지가 되었으리.

예시한 작품은 절친한 벗이었던 元稹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슬픔을 담담한 필체로 서술한 其一과 다르게<sup>25)</sup>, 其二에서는 작품 첫머리에서부터 과거의 행적을 칭양하는 구조를 보인다. 대적할 상대가 없었을 만큼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지녔던 사실과 강하고 굳센 성품을 지녔던 과거를 강조하는 것은 망자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는 전제 조건이 된다. 작가는 벗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을 우선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상기한 예문과 마찬가지로 문인으로서의 업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그 인물의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담아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인들에게 있어 한 인물의 행적은 작문의 원동력이자 개인을 비롯한 다수의 마음속에서 오래토록 잊히지 않길 바라는 개인적 염원이 형성되는 시발점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애제문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제문은 행적의 칭양과 슬픔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규범을 갖추고 있으나, 백거이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일차원적인 나열식 서술에서 더 나아가 작가가 주체적으로 망자의 삶에 개입하여 의미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면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다. 그에 대한 예시로 〈祭浮梁大兄文〉의 일부를 살펴보자.

삼가 생각하건대 큰형은 효도와 우애에 자애로웠으며, 태도가 온화하고 겸손하였으며 행실을 바르게 하는데 힘써 정사를 행하였네. 행동은 집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신의는 벗에게 미쳤네. 청렴함은 관가의 법에 드러났고 온화하고 장중함은 술의 덕택에 형상되었네. 재물의 변영을 바라였고 건강과 안녕을 보위했네. 겨우 중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관직에서 물러났다고

25) 其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팔월에 찬바람이 흰 장막에 불어오고, 침실 문 앞에서 윈진을 슬퍼하네. 처자식 벗들이 와서 서로 애도하며, 오직 하늘이 아는 바 없다고만 말하네.(八月涼風吹白幕, 寢門廊下哭微之。妻孥朋友來相弔, 唯道皇天無所知)”

말하지 않았네. 집을 떠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와병하여 20일도 채 안 되었으나, 하늘은 모르시는 건지 이 잔혹함을 내리셨네. 교유했던 길을 지나니 여전히 탄식을 자아내는데, 골육과 친애했던 이들이 어찌 슬픔을 이길 수 있겠는가. …… 형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형체와 그림자처럼 함께 의지했었지. 생기 없는 마음에 다시 무언가 하려는 마음이 생겼었지. 화살을 피하려던 날에 털 깃 장식 화살이 부러지고, 머리 히어졌을 때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갈 것을 어찌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sup>26)</sup>

위 작품은 백거이의 큰형인 白幼文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과거의 행적에 대한 회상과 그에 대한 슬픔을 서술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망자의 고아한 성품을 작품 전반부에 배치하는 서사 구조는 행적의 칭양을 우선적으로 나열하는 제문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인의 모습에 가깝게 묘사된 망자의 과거 행적은 창작의 당위성을 부여해줌과 동시에 그의 존재 가치를 제고하려는 전제 조건이 된다. 상기한 작품이 제문의 양식을 고수한 것임을 고려할 때, 행적의 칭양은 오히려 형식성에 가까운 의례적인 일면을 서술한 것에 가깝다. 그러나 백거이는 작품 후반에 이르러 대중적 차원에서의 행적 서술에서 벗어나,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망자의 존재적 가치를 강조하려는 독특한 일면을 보인다. 현인의 성품을 지녔던 이상적인 사회상뿐만 아니라, 화자 개인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는 “생기 없는 마음에, 다시 무언가 하려는 마음이 생겼었지.”의 구절에 명시되었듯, 큰형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기술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한 인물의 삶에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그 의미를 재탐색하려는 백거이의 애도 방식은 사회적 불후를 바랐던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단

26) “伏惟哥孝友慈惠，和易謙恭，發自修身，施於爲政。行成門內，信及朋僚。康幹露於官方，濫重形於酒德。冀資福履，保受康寧。不謂纔及中年，始登下位。辭家未踰數月，寢疾未及兩旬，皇天無知，降此凶酷。交遊行路，尚爲興歎。骨肉親愛，豈可勝哀。……自哥至止，形影相依。死灰之心，重有生意。豈料避弓之日，毛羽摧積。垂白之年，手足斷落。”白居易，謝思煒 校注，《白居易文集校注》，中華書局，2017，139-140頁。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 2. 비탄의 고조: 유대 강조

비탄은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 반응이라 할 수 있다. 孔子가 顏淵의 죽음에 대해 서슴없이 통곡했던 사례가 전해지듯, 고대 중국에서 슬픔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닌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현세 사람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었다. 그러나 슬픔이 글로써 표현되는 경우는 달랐다. 일례로 劉勰은 《文心雕龍·哀弔》에서 애도 문학의 한 부류인 哀辭와 弔文의 작법에 대해 “부화한 체재로 애사를 지으면, 표현만 화려하게 될 뿐 슬픔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sup>27)</sup>, “슬프면서도 도리에 알맞아야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sup>28)</sup>라 하며 감정의 지나친 표현과 절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죽음과 애도의 규범을 중시했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백거이에 이르러 기존의 논리적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사실주의적 서술 태도를 견지하면서 죽음 앞에서의 감정 기복 또한 직설적으로 표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비탄이 일시적으로 고조되거나 감정 발현의 전제가 슬픔의 표출보다 후행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29)</sup> 때문에 작품의 논리적 구성보다는 감정의 기술 자체에 무게가 놓이는 모습을 보인다.

비탄의 고조는 자신이 체감한 슬픔의 경험을 보다 직설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삶의 유한성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유발된 감정을 함께 공유하려는 의도<sup>30)</sup>가 함축된 것이면서, 보다 본질적으로는 생전 대상과의 유대를 강

27) “奢體爲辭，則雖麗不哀。” 유협, 성기옥 역, 《文心雕龍》, 지식음반드레지스, 2012, 417쪽.

28) “哀而有正，則無奪倫矣.” 같은 책, 418쪽.

29) 이수정, 앞의 논문, 26쪽.

30) 이수정, 앞의 논문, 26쪽.

조하려는 애도의 표현 방식 일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예시로 〈哭王質夫〉를 살펴보자. 과거의 행적 서술과 벗의 죽음에 대한 원망을 하늘에 호소하는 후반의 부분을 제외하고, 비탄을 서술한 전반부의 내용을 든다.

仙遊寺前別	선유사 앞에서 이별했는데
別來十年餘	이별한지 10여 년이 되었네.
生別猶怏怏	살아서 이별해도 마음이 섭섭한데
死別復何如	죽어서 이별하는 심정은 또 어떠하겠는가.
客從梓潼來	한 객이 재동에서 왔는데
道君死不虛	그대의 죽음이 거짓이 아니라 말했네.
驚疑心未信	놀란 마음에 믿지 않다가
欲哭復踟躕	눈물 흘리려다 또 주저하네.
踟躕寢門側	침실 문 옆에서 주저하다
聲發涕亦俱	소리 내어 눈물 흘리네.
衣上今日淚	옷에는 오늘 흘린 눈물이 가득하고
篋中前月書	상자에는 지난날 주고받은 편지들이 쌓여있네. <sup>31)</sup>

오래전 알고지낸 벗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 이후 지어진 작품이다. 생전 이별한 시점을 명시한 것은 과거의 인연을 전면배치하여 슬픔의 전제로 제시한 것으로, 이를 기점으로 비탄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작가는 망자의 죽음으로 유발된 슬픔을 내면화하려는 고고한 선비적 모습에서 벗어나, 사실주의적 관점을 견지한 감정의 형상화 양상을 보인다. 그에 따라 망자의 죽음을 부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슬픔의 발현을 거쳐 죽음을 수긍하는 심리적 대응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작가는 “哭”, “涕”, “淚”처럼 눈물을 연속적으로 흘리는 행위를 통해 비탄을 고조시킨다. 작품 후반에 이룰수록 슬픔의 정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작가가 실제로 체감한 상심을 단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그

31) 이수정, 앞의 논문, 24쪽.

강도를 부각시키려는데 있다. 즉 문장의 구문이 화자의 감정 형성의 과정과 대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시적으로 고조된 비탄은 “지난달 주고받은 편지들”을 살피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편지의 교환은 두 사람의 관계를 예측 가능케 하는 대상으로, 유대의 긴밀함이 결국 슬픔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탄의 고조를 통한 유대의 강조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부각된다. 다시 〈初喪崔兒報微之晦叔〉을 보자.

書報微之晦叔知	서신으로 원진과 최현량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欲題崔字淚先垂	최 자 쓰려는데 눈물이 먼저 흐르네.
世間此恨偏教我	세상에 이런 한 내게만 모인 것 같은데
天下何人不哭兒	천하에 어떤 사람이 자식의 죽음에 눈물 흘리지 않으리.
蟬老悲鳴拋蛻後	매미는 허물을 벗은 후에야 슬피 울고
龍眠驚覺失珠時	용은 구슬을 잃고 나서야 놀라 일어난다네.
文章十帙官三品	문장은 열권에 관직은 3품인데
身後傳誰庇蔭誰	나 죽으면 누구에게 전해지고 누가 보살펴주려나.

위 작품은 백거이가 60세 무렵에 얻은 막내아들 阿崔가 2세의 나이에 요절하게 된 슬픔을 서술한 것이다. 시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는 절친한 벗이었던 元稹과 崔玄亮 두 사람에게 아들의 부고 소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에 창작한 것으로, “初喪”의 시어를 통해 아들을 떠나보낸 직후의 시점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슬픔의 전제가 감정의 발현보다 후행되는 전개 방식을 보인다. 글을 쓰기도 전에 눈물부터 먼저 흐르는 상황은 슬픔의 정도가 극심함을 나타낸 것으로, 비탄이 고조되었음을 의미한다. 〈哭王質夫〉에서 관계의 긴밀함을 “편지”라는 매개물을 통해 제시했다면, 본 작품에서는 자녀의 죽음이 슬픔의 원인이 되었음을 직접적으로 표명한다. 자녀의 죽음을 대하는 부모의 애통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작가는 이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애착 유대의 강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상술한 작품 대부분이 비탄을 고조시키는데 집중되었다면, 일부 작품에서는 그에 대한 슬픔의 극복 의지를 내비치기도 한다. 다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哭崔兒〉의 원문을 보자.

掌珠一顆兒三歲	손바닥 위 구슬 같던 너는 겨우 세 살이었는데
鬢雪千莖父六旬	살쩍 하얀 아버지는 예순에 가까웠지.
豈料汝先爲異物	네가 먼저 떠날 줄을 어찌 상상했겠는가.
常憂吾不見成人	나는 늘 성인이 되는 것 못 볼까 걱정했었네.
悲腸自斷非因劍	슬픔이 극에 달하니 칼로 베지 않아도 창자 절로 끊기고
啼眼加昏不是塵	소리 내 울어 눈앞이 흐려졌는데 먼지 때문 아니라네.
懷抱又空天默默	마음 속 생각 텅 빈 것 같아 하늘은 공연히 어둡해지니
依前重作鄧攸身	이전의 鄧攸의 신세에 기대어 보네. <sup>32)</sup>

마찬가지로 “창자가 절로 끊기는” 심적 반응과 눈물이 흘러 앞이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슬픔의 반응을 묘사하여 비탄을 고조시키는 양상을 내비친다. 그러나 작가는 감정을 발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鄧攸” 전고<sup>33)</sup>를 연상시키는 방식을 통해 아들을 잃게 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동병상련의 상황에 스스로를 이입하여 위안을 얻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주변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祭李侍郎文〉은李建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으로,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고조된 비탄의 상황이 장례를 통해 해소된다. 아래의 예문은 해당 부분을 발췌한 작품 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아, 이건이여! 나 버린 것 참아야 하는가? 나를 어디에 버렸나? 나를

32) 이수정, 앞의 논문, 20쪽.

33) 쑤나라 사람인 鄧攸가 石勒의 난리 때 자신의 아들과 조카를 업고 남쪽으로 달아나다, 두 아이를 모두 데려갈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자 자신의 아들을 제쳐두고 조카를 살려 끝내 더 이상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鄧攸無子”의 고사를 이른다.

버려두고 어디로 갔는가? 어찌 본질로 환원하여 어두운 곳으로 가버려, 아무렇지도 않게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가? 사용한 사물이 정미하고 많으면 혼이 강해지니, 꼭 아는 바가 있는 듯하네. 더욱이 들을 수 있고 홀연 보이는 듯하여, 이별의 말 하는 것 바라지 않았네. 그대 영혼이 있고 그 곳에 꿈이 있다면, 어찌 나에게 와서 대답하지 않는가! 흘러가는 냇물은 아득하니 돌아오지 않고, 해와 달은 돌연 나오는 때가 있다네. 갈림길을 가리키니 합장하고 있는데, 장중한 장례의 대열이 늘어져 있네. 예법은 나아감만 있을 뿐 물러남이 없으니, 조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전야로 전송하네. 깃발 장대 들고 수레가 움직이니, 끝내 장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네. 아아, 이건이여! 이를 살펴봐다오!<sup>34)</sup>

작가는 “遺”, “棄”, “捨”의 字를 통해 망자의 죽음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적 선택에 의한 역설적인 상황임을 부각시켜 “버려진” 자신의 당혹스러운 심경을 고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 제시된 의문 형태의 구절은 망자의 죽음을 부정하는 애도 주체의 일차적인 반응이 되지만, 작가는 이를 반복적으로 나열시킴으로써 단순히 슬픔을 현현하는 차원을 넘어 끝내 대상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을 재차 강조한다.

그러나 작가는 고조된 비탄의 상황을 지속시키는 대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의 전환을 통해 슬픔의 극복 의지를 보인다. 자칫 무분별한 감정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절제하여 죽음을 담담히 수용하려는 의미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백거이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종교의 교리가 슬픔을 해소하는 명목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은 〈祭微之文〉의 후반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34) “嗚呼杓植! 而忍遺我? 棄我何處? 捨我何之? 豈反真歸冥, 漠然而無所爲? 將精多魂強, 的然而有所知. 悅如聞兮倏如視, 未甘心於永辭. 彼有靈兮此有夢, 胡不一來兮質我疑! 逝川渺其不迴, 日月忽乎有時. 指岐下以歸祔, 備大葬之威儀. 禮有進而無退, 祖於庭而送之畿. 旌竿舉兮而輪動, 遂不得少留乎京師. 嗚呼杓植! 其鑒于茲!” 白居易, 謝思煒 校注, 앞의 책, 147-159頁.

아아, 원진이여! 삼계에서 누가 죽지 않겠으며, 사해 안에서 누가 벗을 사귀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와 그대의 몸, 평생토록 이별하게 되었구나. 이미 떠난 사람은 떠간 것일 뿐, 죽지 않은 나는 어찌란 말인가? 아아, 원진이여! 60의 노쇠한 늙은이 싸늘한 마음에 피눈물 흐르게 하는구나. 술 잔 들고 다시 제 올리며, 관 어루만지고 한 차례 부르짖어보네. 《불경》에 이르길 “무릇 업으로 이어진 관계는,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라 하였다네. 그대와 인연으로 만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세상 속에서 몇 번이고 헤어졌다 만났는가. 오늘 이별한다고 어찌 훗날의 기약이 없겠는가? 그대 지금 돌아오지 않지만, 나도 응당 죽음을 따를 것이네. 형체가 떠났으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어찌 있겠으며, 피부가 소실되었으나 털이 있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아아, 원진이여! 여기서 말을 마치려 하네.<sup>35)</sup>

元稹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한 심경이 묘사된 부분이다. 작가는 인간이 필멸의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노년에 절친한 벗을 잃은 채 세상에 남겨진 고독감과 슬픔을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무엇보다 “싸늘한 마음에 피눈물 흐르는”<sup>36)</sup> 작중 화자의 형상은 관계의 상실로 인한 충격을 다소 과장되게 표출한 부분으로, 비탄이 고조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祭李侍郎文>에서 고조된 감정을 장례를 통해 해소했듯, 여기서는 슬픔에 대한 대처로서 불경의 구절이 제시된다.業에 따라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의 윤회설에 근거하여 현세에서의 인연이 훗날에도 이어질 것임을 상기시켜 심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백거이의 애도 문학은 비탄이라는 개인의 주체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한 유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음과 애도에 대처하는 제 방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다각적인 요소를 지닌다

35) “嗚呼微之! 三界之間, 誰不生死? 四海之內, 誰無交朋? 然以我爾之身, 爲終天之別. 既往者已矣, 未死者如何? 嗚呼微之! 六十衰翁, 灰心血淚, 引酒再奠, 撫棺一呼. 佛經云, 凡有業結, 無非因集. 與公緣會, 豈是偶然? 多生已來, 幾離幾合? 既有今別, 寧無後期? 公雖不歸, 我應繼往. 安有形去而影在, 皮亡而毛存者乎? 嗚呼微之! 言盡於此.” 朱金城, 앞의 책, 3721-3722頁.

36) 《文苑英華》에는 “血”字が “流”字로 되어 있다. 朱金城, 앞의 책, 3724頁.

하겠다.

### 3. 수동적 허무주의 발현: 죽음의 수용

수동적 허무주의란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의 철학적 견해에 기반 한 용어로 자율적인 의지를 갖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sup>37)</sup> 니체가 제기한 용어를 잠시 차용해보자면, 백거이의 애도 문학에서는 정서적 비탄으로 인한 충격이 수동적 허무주의를 발현시키는 전제로 제시된다. 이는 타인의 죽음을 수용하는 죽음 태도에 기반 한다. 죽음의 수용을 통한 脫悲嘆의 통로로 나아가는 대신, 삶의 의욕을 상실한 무력감과 절망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애도 주체인 스스로의 처지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 허무주의가 백거이의 모든 애도 문학 작품에 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대체로 만년의 무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40세 무렵에 창작된 애도 작품에서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견지되는 부분을 통해 확인된다. 그에 대한 예시로 그의 네 번째 동생인 白幼美의 죽음을 애도한 〈祭小弟文〉의 일부를 살펴보자. 이는 白居易 나이 42세 때 지어진 것이다.

세월이 흘러 22년이 되었네. 우리는 이치를 거스르는 죄를 지어, 하늘이 내리는 벌을 받게 되었네. 한 번 이별한 후로 거듭 괴로워졌네. 짜늘한 마음에 더러워진 얼굴로 눈물 줄줄 흘리며 슬프게 우네. 소나무와 개오동나무 아래에는, 네가 살아있을 때의 잔상이 아직 남아 있네. 옛날 너는 땅

37) 정신력의 하강과 퇴행으로서의 허무주의 : 수동적 허무주의 : 약함의 징후로서 : 정신력이 지칠대로 지쳐버리고 고갈되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목표나 가치들이 이것에 적합하지 않게 되며, 더 이상 신뢰받지 않는다. (모든 강한 문화가 근거하는) 가치와 목표들의 종합이 용해되어 버려 개별적인 가치들이 서로 싸운다 : 해체 원기를 북돋우고, 치료하고, 안정시키고, 마취시키는 모든 것이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미적 등으로 다양하게 위장하고서 전면에 부각된다. 프리드리히 니체, 백승영 역, 《유고》, 책세상, 2004 참조.

아래에서 혼자가 되었는데, 지금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가 되었는데. 구차하게 살아남아 홀로 괴로워하느니, 죽어서 가정이 화합되는 것이 낫겠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라지고 싶으나, 이는 또한 천수를 다하는 것을 이치로 여기는 효 사상에 어긋나네.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니, 한가운데서 번뇌하네. 하늘을 바라보고 한 차례 부르짖으니, 애통함 끊이지 않는구나.<sup>38)</sup>

白居易는 상기한 애제문 외에도 〈唐太原白氏之殤墓誌銘〉을 통해 白幼美의 죽음을 애도했을 만큼 넷째 동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白幼美는 9세의 나이에 요절했다고 전해진다.<sup>39)</sup> 작가는 2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슬픔을 직설적인 어조로 토로한다. 이는 “죽어서 가정이 화합되는 것이 낫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라지고 싶다.”라는 구절을 통해 제시된다. 자살을 통해서라도 망자와 함께하려는 다소 극단적인 의사 결정은 상실의 고통을 외면화한 시도로서 수동적 허무주의가 발현된 일면이 분명히 보이지만, 작가는 이러한 절망을 대처하는 방편으로 “효 사상”을 제기한다. “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孝經》의 이념에 따라 자살의 시도를 단념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완전한 슬픔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망과 비관에 따른 수동적 허무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런 반면 62세 무렵에 지어진 〈哭崔常侍晦叔〉에서는 타자의 죽음을 수용함에 따라 허무주의가 발현되는 형태를 보인다. 아래의 예문은 과거의 행적을 회상한 전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垂老忽相失    칠십 노인 홀연 잃게 되니  
悲哉口語心    그대에게 마음 터놓고 말했던 일 슬프구나.

38) “日來月往, 二十二年. 吾等罪逆不孝, 殃罰所延. 一別爾後, 再罹凶艱. 灰心垢面, 泣血漣漣. 松楸之下, 其生尚殘. 昔爾孤於地下, 今我孤於人間. 與其偷生而孤苦, 不若就死而團圓. 欲自決以毀滅, 又傷孝於歸全. 進退不可, 中心煩冤. 仰天一號, 痛苦萬端.” 白居易, 謝思煒 校注, 앞의 책, 133頁.

39) 〈祭小弟文〉 전반부에 “이흠 살에 요절했다.(九歲夭焉)”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春日嵩高陽	높이 뜬 해는 봄날이라 우뚝 솟아있고
秋夜清洛陰	낙수 물 위 달그림자 가을밤에 맑구나.
丘園共誰卜	언덕과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점치나.
山水共誰尋	산수는 누구와 함께 찾아가나.
風月共誰賞	바람과 달은 누구와 함께 감상하나.
詩篇共誰吟	시편은 누구와 함께 읊어보나.
花開共誰看	꽃이 피면 누구와 함께 바라보나.
酒熟共誰斟	술 익으면 누구와 함께 맛보나.
惠死莊杜口	혜사가 죽자 장주는 말이 없어졌고
鍾歿師廢琴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 줄 끊었네.
道理使之然	이것이 자연스러운 도리이니
從古非獨今	예로부터 그런 것이지 유독 오늘날 그런 것 아니라네.
吾道自此孤	나는 이로부터 외로워졌으니
我情安可任	내 마음 어디에 의지할 수 있을까.
唯將病眼淚	오로지 병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
一灑秋風襟	가을바람 맞은 소매로 닦아내네. <sup>40)</sup>

위 작품은 절친한 벗이었던 崔玄亮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예문 중 “共誰”가 중심이 된 동일한 구식의 반복적 활용은 망자에 대한 슬픔의 정도를 구별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는 대상의 상실을 전제하는 면에서 죽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암울한 심경이 반영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슬픔을 유발하는 계기이자 수동적 허무주의가 발현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작가는 선현들의 죽음의 대응 방식을 상기하며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발현을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이지만, 죽음의 긍정을 통해 비탄을 해소하는 대신, 도리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죽음의 긍정적 수용이 이를 극복하려는 개아의 주체적인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백거이는 고독과 공허함 속에서 눈물만 흘리는 허무주의에 침식되어버린 강한 무기력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같은 해 창작된 〈微之敦詩晦叔相次長逝，巋然自傷，因成二絕〉의 “기

40) 이수정, 앞의 논문, 31쪽.

나긴 밤 그대들 먼저 가버리면, 남은 세월 나는 어찌하리.(長夜君先去, 殘年我幾何) 등의 구절에서도 발견된다.

65세에 지어진 〈哭師皇〉에서도 타인의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심리적 반응이 제시되면서 허무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을 띤다. 아래에서 전문을 예시로 든다.

南康丹旆引魂迴  
洛陽籃舁送葬來  
北邙原邊尹村畔  
月苦煙愁夜過半

妻孥兄弟號一聲  
十二人腸一時斷  
往者何人送者誰  
樂天哭別師皇時  
平生分義向人盡  
今日哀冤唯我知  
我知何益徒垂淚  
籃輿迴竿馬迴轡  
何日重聞掃市歌  
誰家收得琵琶伎  
蕭蕭風樹白楊影  
蒼蒼露草青蒿氣  
更就墳前哭一聲  
與君此別終天地

남강의 붉은 깃발 혼백 이끌고 돌아오고  
낙양의 푸른 수레는 장사 지내고 돌아오네.  
북망산 언덕에 있는 윤촌에는  
달도 괴로워하고 안개도 수심에 쌓여 밤이 절반만 지나갔네.  
처자식과 형제들 한 차례 울부짖으니  
열 두 사람 창자가 한 번에 끊겼네.  
가는 이 누구이고 보내주는 이 누구인가.  
나는 옛 벗인 사고와 울며 이별했었네.  
평생토록 지켜야 할 도리 그대 향해 다했으니  
지금의 슬픔은 나만 안다네.  
헛되이 눈물 흘리는데 나만 안다고 무슨 소용 있겠는가.  
푸른 수레 돌아오고 말도 고삐 차고 돌아오네.  
언제 다시 〈소시〉 노래 들을 수 있으려나.  
어느 집에서 비파 타는 기녀 초대하겠는가.  
쓸쓸히 나무에 바람 불어오고 백양나무 그림자 비치는데  
푸릇푸릇 이슬 낀 풀과 푸른 이끼 자라있네.  
더욱이 무덤 앞에서 한 차례 곡소리 내는데  
그대와 여기서 이별하니 세상이 끝난 것만 같구나.<sup>41)</sup>

위 작품은 楊虞卿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장례를 치르는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 따라 감정이 형성되는 구성을 보인다. 비탄의 주체가 자신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관계의 단절이 전제가 된 슬픔이 서술

41) 이수정, 앞의 논문, 28쪽.

된다. 작가는 그 누구보다 가깝게 망자의 삶을 지켜봐왔고 그러한 친분이 슬픔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장례가 완전히 종료되어 죽음을 수용하는 기점에 이르자 허무주의적 태도를 내비친다. 이는 평범했던 일상이 더 이상 재현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수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작중 시선도 삶의 단절을 상징하는 무덤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별을 대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슬픔과 그로 인한 절망감은 변화된 현실과 다가오는 일상 회복의 자연스러운 단계가 되지만, 작가는 일상으로 회귀하려는 어떠한 의욕에 대한 기술 없이 “세상이 끝난 것만 같구나.”의 비관적 구절을 통해 무기력한 심경을 전달한다. 사실상 현실에 대해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哭劉尚書夢得二首〉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其二의 전문을 살펴보자.

今日哭君吾道孤	지금 그대 때문에 눈물 흘리며 외롭다고 말하고
寢門淚滿白髭鬚	침실 문 앞에서 흰 수염에 눈물 가득 흘렸네.
不知箭折弓何用	화살 꺾이면 활 사용할 줄 모르듯
兼恐唇亡齒亦枯	입술 없어지니 이빨 마를 것 걱정하네.
宵宵窮泉埋寶玉	아득한 구천에 보배로운 옥 묻히고
駸駸落景挂柔榆	빠르게 떨어지는 석양은 뽕나무 느릅나무에 걸려있네.
夜臺暮齒期非遠	무덤에서 만나자던 기약 멀지 않았으니
但問前頭相見無	앞서 간 원진과 서로 만났는지 물어보네.

71세에 지어진 위 작품은 만년에 절친하게 지냈던 벗인 劉禹錫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백거이 애도시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작중 화자는 죽음을 수용하는 일차 반응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 후반에 이르러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심적 상태로 이어진다. “앞서 간 원진과 서로 만났는지 물어본다.”는 구절은 현세의 삶에 대한 의미 탐색이 무의미함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는 수동적 허무주의의 일면이 반영된 부분이 된다.

백거이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74세에 삶을 마감하게 된다. 타인의 죽음에 대한 수동적 허무주의의 발현은 대체로 만년에 이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목도한 심적 부담에 따른 결과로서, 죽음과 애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인간 백거이의 고독했던 일생의 단면을 보여준다.

#### IV. 타인의 죽음에 투영된 주체성

상술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백거이의 애도 문학은 개인의 주체성에 따른 심리적 동인이 내용 전개的主导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즉 상기한 제 특징들은 독립된 존재로서의 개인이 타인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애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인 주체성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백거이의 애도 문학에 특정된 특징을 바탕으로 그것에 투영된 주체성 담론에 대해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주체성은 자유롭고 자주적인 능동적 성질에 기반 하는 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장에서는 형식주의의 탈피를 통한 문학적 독립의 시도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려 한다.

고대 중국에서 죽음과 애도는 제례 의식의 한 부분으로 엄격한 규범과 형식의 영역 안에서 다루어졌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애도문은 형식주의에 기반 한 창작물로서 존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더욱이 위진 이후 출현한 劉勰의 《文心雕龍》 등, 여러 文體論著에 제시된 애도문 창작에 대한 엄격한 규범과 정의는 문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자유를 억압해왔다. 그에 따라 당시 문인들은 형식주의와의 타협과 경쟁 속에서 제도권 내의 문학 창작에 기여했으나, 사실상 자기 주체성이 해체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백거이의 애도 문학이 보여준 죽음과 애도의 말하기 방

식은 형식주의를 탈피하고 개인 주체성을 실현하려는 과도기적 단계의 중심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애제문 창작의 사례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인다. 이를테면 백거이는 동생 白幼美의 죽음을 애도한 〈祭小弟文〉에서 작품 앞머리부터 감정을 직설적인 화법으로 제시하는 파격적인 전개 방식을 택한다. 애도시에서도 슬픔의 전제보다 개아의 감정 서술을 전면배치하는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 이는 隨感遇와 直에 따라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 방식을 추구했던 백거이 자신만의 창작 이념이 반영된 산물이기도 하다. 이에 胡應麟은 백거이의 작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나, 일의 진행 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sup>42)</sup>라 하며 작문의 논리적 문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문학의 주체성 실현을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당시 문인들의 오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망자의 죽음과 과거의 삶은 더 이상 형식주의의 틀 속에 매몰되지 않았고, 사실에 근거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서사 방식이 다른 시가 체재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글쓰기 방식이라면, 모든 문학은 작가의 주체성 아래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애도 문학 자체의 발전사를 통틀어 볼 때, 이는 분명 강한 형식주의 경향을 보였던 기존의 애도 문학 양식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즉 백거이의 애도 문학에 보이는 주체성 담론의 여지는 당인들의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징후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계기성은 안사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볼 수 있다. 국난 이후 파괴된 기존 사회의 시스템이 도리어 문학 해방의 계기로 작용하자 비주류에 속했던 다양한 이념과 논의들이 앞 다투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된 공간은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문인들의 사고방식에 개성을 불어넣도록 이끌었다. 개성의 실현은

42) “胡元瑞謂“敷演有餘，步驟不足” 許學夷, 박정숙·신민야 역주, 《詩源歸體》, 세창출판사, 231쪽.

곧 개인의 주체적인 성향을 문학에 구현시키는 방식을 통해 나타났다. 백거이를 비롯한 韋應物, 元稹, 劉禹錫 등 상당수의 문인들도 주체성에 근거한 애도 문학의 창작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보여준 화답과 대리 창작<sup>43)</sup>을 통한 애도는 타인의 슬픔에 대한 주체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면에서 주체성 담론의 또 다른 실천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백거이의 애도 문학에 투영된 주체성은 기존의 형식적 규범의 탈피를 통한 개아의 주체적인 의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당대 지식계의 죽음과 애도를 바라보는 시선과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적 근거로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거이는 애도시와 애제문이라는 상이한 문학 체재의 고유한 특징들로부터 독립하여 죽음과 애도라는 실존적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사고와 사실주의적 감정 형상에 기반한 표현 방식을 표명하고 있었다. 이에 기초해 백거이는 애도 주체가 중심이 된 서사 구조를 구성하는 한편, 타인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주요 인식을 있는 그대로 구현해냄으로써 형식주의에 매몰된 기존의 애도 문학 작품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거시적으로 당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사회적 통념의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이면서, 백거이 개인이 지닌 애도 문학 고유의 특징을 담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주체성 담론의 여지는 국난 직후의 비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일환이자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통념을 구축하고자 한 문제의식의 소산이었다. 그리고 그가 보

43) 그에 대한 예시로 백거이의 〈答謝家最小偏憐女〉, 〈答騎馬入空臺〉, 〈見元九悼亡詩, 因以此寄〉, 〈和元九悼往〉, 劉禹錫의 〈吟白樂天哭崔兒二首, 愴然寄贈〉 등을 들 수 있다.

여준 이러한 담론적 실천이 변화된 죽음과 애도에 대한 당인의 인식과 그 의미를 규정해주고 있었다.

그에 따라 백거이 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애도의 표현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애도 주체인 화자가 직접 망자의 삶에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의미를 재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망자의 존재 가치의 제고를 통한 사회적 불후성의 추구에 있었다. 둘째, 자신이 체감한 비탄의 심경을 보다 직설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망자와의 유대를 강조하려는 개인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다. 셋째, 수동적 허무주의의 발현이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무력감과 절망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애도 주체인 스스로의 처지를 비판하려는 태도가 중심이 된다. 이는 죽음을 수용하는 생사이로의 관념이 바탕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타인의 죽음에 투영된 작가의 주체성이다. 즉 타인의 죽음에 대한 삶의 의미 탐색, 비탄의 고조, 수동적 허무주의의 발현이라는 제 말하기 방식의 주체가 작가 자신에게 있다는 의식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거이에게 있어 애도 문학은 단순히 현실 속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려는 경험적 실체에 기반을 둔다기보다는, 주체가 체감한 감정의 공유를 통해 실존적 문제에 대한 사유와 고민을 토로하려는 개인적 염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가와이 코오조오, 심경호 역,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권석만,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학지사, 2019.  
유병례, 《세속의 욕망과 그 달관의 노래》, 신서원, 2007.  
유협, 성기욱 역, 《文心雕龍》, 지식은만드는지식, 2012.

- 이수정, 〈中唐 悼亡詩의 언어표현에 대한 고찰-韋應物, 元稹의 悼亡詩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65집, 2018.
- 이수정, 〈白居易 哀悼詩 小考-‘隨感遇’와 ‘直’에 따른 직설적인 말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76집, 2021.
- 許學夷, 박정숙·신민야 역주, 《詩源辯體》, 세창출판사, 2016.
- 逯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 中華書局, 1983.
- 滕漢洋, 《白居易生活與文學考論》,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 班固, 《漢書》, 中華書局, 1962.
- 蕭統, 《六臣注文選》, 中華書局, 2012.
- 白居易, 謝思煒 校注, 《白居易文集校注》, 中華書局, 2017.
- 謝思煒, 《白居易文集校注》, 中華書局, 2017.
- 溫瑜, 〈白居易哀悼詩簡論〉, 《新疆職業大學學報》 第4期, 2016.
- 尹福, 〈白居易思想轉變之再探討〉, 《求索》 第1期, 2004.
- 朱金城, 《白居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8.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peaking method on death and mourning in the literary works of elegy(哀悼詩) and funeral oration(哀祭文) of Bai Ju Yi.

The speaking method on death and mourning can be categorized in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is to re-consider the life of the deceased, which means immortality in society. He was trying to find the existence value of the deceased. The second phase is the direct expression on grief in plain words, which implies human bond with the deceased. Logical disorder in his works is due to the straightforward expression of emotion.

The third phase is the expression of passive nihilism. He was describing the helplessness through pessimistic attitude. This concept originated from the idea of two different ways of life and death(生死異路).

In conclusion, the speaking method on the death and mourning through these three phases implied the changed world view. Thus, this research gives a chance to re-evaluate Bai Ju Yi's literary works.

**Key Words** : 백거이(Bai Ju Yi), 죽음(Death), 애도(Mourning),  
말하기방식(Method of Speaking), 애도시(Elegy),  
애제문(Funeral Oration), 주체성(Independence)

